

— FBI 스토리 <13> —

美 国 搜 査 秘 話

돈·화이트 헤드 著

金 疇 洙 譯

<延世大 法大教授>

科學者와 未知人

1943년 12월 3일이었다. 이태리에 주둔하는 美陸軍第5軍은 「카지노」를 향해서 「나치스」가 장악하고 있는 산을 넘어 피비린내 나는 도로를 서서히 진군하고 있었다. 「러시아」전선에서는 「스타린그라드」전투에서 독일군의 형세가 불리하게 되었다. 大西洋의 찬 안개로부터 英國

輸送船 「안데스」호는 「버니지아」州 「노포크」의 內水로 들어와서 정박하였다. 영국으로부터 길고 모험적인 항해가 끝나고 선원과 승객들로 부터 긴장이 풀리었다. 배가 上陸準備를 서둘고 있는 동안 영국의 科學者 일행이 난간에서 웃고 농담을 하고 있었다. 오늘 밤은 「뉴우욕」이다. 「런던」과 비교할 때 불빛으로 휘황찬란한 도시. 「런던」시민들은 4년동안을 희미한 消燈밑에서 지내왔다……. 上空에 적기가 날지 않고 폭탄이나 고사포의 폭음이 없으며 매일밤 잠을 깨게하고 신경을 날카롭게 하는 요란한 「싸이렌」 소리가 없는 都市다.

도착의 흥분아래는 보다 더 큰 다른 흥분이 있었다. 이것은 戰爭努力의 결과로 산출된 매우 중대한 것으로서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흥분의 참된 의미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선발된 科學者 自身들 사이에도 단지 미래에 할 일을 추측할 뿐이었다. 科學者들의 어느 누구도 「캐나다」人和 美國人과 합동하여 19개월이란 믿기 어려운 짧은 시일에 軍事武器로서 原子를 動力化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처음으로 미국에 온 영리하고 파리한 얼굴을 가진 젊은 物理學者까지도 그러한 성과를 상상할 수가 없었다.

한 늙은 學者는 젊은이들 곁에 있는 난간에 기대고 있었다. 그의 눈은 두터운 안경너머로 크고 둥글게 보였다. 『크라우스 여기는 우리가 茶를 무역하던 식민지였소. 나는 참말로 여기에 온 것이 기쁩니다』라고 늙은 학자는 말하였다. 「크라우스 폭호스」는 미소를 지으며 『나도 기쁩니다. 나는 전에 미국에 왔던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오 당신은 옛 친구들을 만난 것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매사추셋츠」州 「캠브릿지」에 한 누이가 있을 뿐입니다』라고 「폭호스」가 말하였다.

그것은 정말이었다. 「폭호스」는 그의 누이 이외에는 미국에서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히틀러」가 독일에서 권력을 잡은 후에 많은 科學者들이 망명한 것처럼 1973년 독일로부터 영국으로 망명하여 왔었다. 독일과 영국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그는 敵國人으로서 잠시

구금되었었다. 그러나 구금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영국을 위하여 핵연구를 하였고 이제는 英國市民權을 가지고 있다. 이미 그는 특별히 영리한 物理學者와 數學者로서 명성을 얻고 있었다. 이것이 그가 사절의 一人으로 선발된 원인이었다.

「크라우스 폭호스」는 그의 누이 이외에는 美國國內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수백만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디에선가 未知人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폭호스」는 어느 날인가는 그와 未知人이 만나 서로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會合에서 영국에서 未知人과 접촉이 이루어진 것처럼 접촉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未知人은 얼굴도 모양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 당시에 사정은 서로 똑같았다. 「크라우스」라고 부르는 소리에 이 젊은 科學者는 돌아 보고 난간에서 돌아서 다른 사람과 함께 급히 步板으로 내려갔다.

保安官吏의 시끄러운 검사가 없었다. 陸軍이 原子의 안보를 감시하고 原子力計劃을 연구하는 「맨해턴」 技術者團에 선발된 사람들을 돌보는 데 대한 절대적 책임을 지고 있었다. 영국은 「폭호스」가 믿을만하고 충성심이 있음을 陸軍 「맨해턴」 技術者團에 보증을 하였다. 이러한 보증이 승인되었다. 短時日內에 英國科學者들은 「뉴우욕」에로의 旅程에 올라 「뉴우욕」市の 輝煌찬란함을 즐기고 未知의 原子研究에 몰두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一行中 한 사람은 완전히 原子問題에 열중하지 않았다. 「안데스」호의 도착후 몇 주일은 「크라우스·폭호스」는 바람부는 토요일 오후 「바비존 프라자」 호텔에서 부टना와 산책하였다. 몇분 후 그는 「뉴우욕」 東部 지하철도에서 나왔다.

통행인들은 손에 흰 「테니스」공을 가지고 「오바코트」로 몸을 싣 야위고 파리한 사람에게 대하여 미소를 지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마 그렇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특이한 光景까지도 「뉴우욕」의 市街에서는 그리 주목을 끌지 않았다. 「크라우스 폭호스」는 未知人을 발견하였다. 이 科學者는 未知人이 손에 장갑을 끼고 있고 푸른 끈으로 묶은 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곧 그를 알아 보았다. 未知人은 5尺 10寸의 키와 건장한 체격을 가진 중년신사였다.

그의 얼굴은 둥글고 무감각하였다. 그 未知人의 눈은 「폭호스」의 손에 가진 「테니스」공에 번득이었다. 그는 科學者에 말을 걸고 그들 둘은 「택시」에 몸을 실었다. 그들이 3등식당의 「테이블」에 앉았을때 未知人은 『나는 「레이몬드」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의 眞名이 「하리 골드」라는 것을 「폭호스」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미소가 科學者의 입술에서 흘러 나왔다.

『나는 「크라우스·폭호스」 박사입니다』라고 말하였다. 未知人은 고개를 끄덕이었다. 「폭호스」는 그의 동료에게 최고비밀인 「맨해턴」 技術者團에 관해서 이야기 하였다. 그는 분열시킬 수 있는 「우라늄」 대량생산과 군사무기에 原子力을 動力化시킬 목표에 관한 과학적이고 산업적인 「퍼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되고 있는 노력에 관해서 이야기 하였다. 그는 상세한 것을 후에 말할 것을 약속하고 그들이 다음 會合을 위한 신호를 정하고 헤어졌다.

이같이 數分 동안에 「크라우스·폭호스」와 未知人은 우리 世代에 있어 가장 놀라운 범죄로 인도하는 警備되어 있지 않는 門을 열었다. 즉 朝鮮을 위하여 原子秘密을 도둑질 하였다. 이것은 1944년 초였다.

1949년 9월 초에 「유럽」 戰争과 태평양에서의 전투는 4년제를 맞이 하였다. 이미 朝鮮은 동맹국이 아니었다. 朝鮮은 非外交의 人用語로 말하면 西方側의 냉전의 적국이었다.

FBI局長 「에드거·후우버」는 「펜실베니아」 街에 위치하고 있는 法務部의 그의 책상에서 最高秘密報告書를 연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서 차 있었다. 외국간첩이 원자탄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원자탄의 구조와 폭발시키는 비밀을 훔쳐 간 것이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정보가 있었다. 「후우버」는 電信으로 그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였다. 그는 그의 關鍵의 部下에게 一連의 명령을 내렸다. FBI의 방대한 기구는 움직였다. 「후우버」의 명령은 『原子彈의 秘密을 도둑맞았다. 도둑을 잡아라』는 내용이었다.

陸軍이 아닌 「후우버」와 FBI는 이제 原子安保에 관한 책임을 졌다. 原子安保를 견고히 하는 1946년의 原子力법에 관하여 의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긴급한 경우에 있어서 原子力委員會로부터 권한이 부여된 때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FBI가 그 사람의 성격, 교제와 충성심等を 조사하여 委員會에 보고할때까지는 委員會에 의하여 고용될 수 없다……. 이 법의 모든 위반은 FBI에 의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 책임은 1947년 1월 1일에 노력을 발생하였다. 「후우버」의 手中에 있는 범죄에 관한 정보가 매우 충격이 컸으므로 「世紀의 犯罪」라고 불리울 만한 것이다.

「후우버」 부하는 「뉴멕시코」州 「싼타 프」가 사이에 있는 「로스 아라모스」 原子工場과 다른 공장들로 모였다. 그들은 原子力委員會의 기록과 각인의 신원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다소 의심이 될 만한 數百人과 회견을 하였다. 2·3일 내에 FBI는 犯罪의 중요한 인물은 外國使節中에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즉, 「우라늄」 가공과 爆彈組立을 하는 모든 공장을 자유로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며 物理學者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영국도 이같은 결론을 통지받았다.

이같이 범인을 열심히 탐색하고 있는 동안 「투루우만」 대통령은 정부가 『최근 몇 週日內에 鈔면에서 原子爆彈實驗이 있었다는 證據를 入手하였다』는 그의 성명으로서 국민들을 흥분시켰다. 인제 세계는 미국은 원자탄을 독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鈔면은 어떻게 原子發展에 있어서 일대도약을 하여 공산세력에 대한 자유세계의 세력을 극적으로 약화시켰다. 9월말 가까이 증거의 「코일」은 「크라우스·폭호

스」 주위를 확고히 둘러쌌다. 알려진 기록에 의하면 확실히 범인으로 체포하기에는 불가능하였다. 그는 이미 「하웰」에 설치된 英國原子力機構理論物理學部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부장으로 있었으며 빛나는 장래성을 가진 物理學者였다. 그를 잘 아는 婦人은 정치에는 그리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은 내심적인 유쾌한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英國安保官吏는 그의 충성심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었다.

그래서 세계제2차대전중에 情報將校가 압수한 오래된 「나치스」 기록을 파고 든 한 공작원은 「크라우스 폭호스」라는 이름이 있는 기록을 들추었다. 그것을 번역하면 그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써 있었다. 『「크라우스 폭호스」物理學徒 1911년 12월 29일 출생, 「루셀싸임」출신 RSHA-IVA2, 「키어르」 지방 「게스타포」』 FBI 공작원은 독일 「게스타포」철에 있는 「크라우스폭호스」는 「로스 아라모스」에서 일한 독일출생인 영국의 物理學者 「크라우스 폭호스」와 같은 出生日과 出生地를 가졌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첫머리의 RSHA는 保安警察中央局을 의미하였다. 「로마」數字 IV는 RSHA의 한 부를 의미하였다. 기록A2는 「게스타포」가 공산주의자로서 인정한 사람의 이름을 기입한 特別欄을 의미하고 있었다. 또한 共產主義綴에는 「크라우스·폭호스」에 관계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다른 이름이 기입되어 있었다. 그것으로서는 오랜 「게스타포」綴은 아무런 증명도 안되었다. 「나치스」는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이유로 많은 무고한 사람을 공산주의자라고 뒤집어 씌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정보는 무시할 수가 없었다.

(다음호에 계속)

편집 후기

「월부인생」/ 속도
게 생각하면 어떤 물
건을 월부로 사거나 파
는 생이라는 개념이 통
념일 것이다.

그러나 인생, 그 자
체가 월부인생이듯 같
다. 왜냐하면 사람의
일생을 몇십년 이라고
하나 결국 한달 한달 꺼
나가 는 것임에는 틀림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하
루하루, 한달한달이 얼
마나 소중한고 의미가
큰것인가를 새삼스럼
게 되새겨 본다.

월간지를 만들다보
니 1년을 매월 꺼나가
는 기분이고, 계속 한
달씩 꺼나간다고 생각
하니 월부인생이란 의
미를 심각하게 뇌어본
다.